KERI 정책제언 22-01

KERI Insight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박 기 성
성신여자대학교
(kpark@sungshin.ac.k)

서 영 빈
연합인포맥스
(ybseo@yna.co.kr)

코로나19 발발 전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긍정적인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반영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펴고, 재정당국도 이를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통계는 2018년경부터 단시간 일자리 비중 증가에 따라 현실과 점점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괴리를 보정하기 위해 OECD에서 사용하는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방식의 고용통계를 산출해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책 결정을 위함이다.

FTE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2017년 2,860만 4,000명에 비해 209만 2,000명(7.3%) 감소했다. 2019년 2,760만 4,000명에 비해서도 109만 3,000명(4.0%)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방식과 정반대로 2017년이나 코로나19 직전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코로나 발발 직전인 2019년 연간 취업자 2,712만 3,000명에 비해 0.6%(15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수준보다 더 개선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FTE 방식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전일제 환산 1명(1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40시간 기준은 FTE 개념을 도입한 OECD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한 주에 2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0.5명(0.5FTE)으로, 반면 6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5명(1.5FTE)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서 취업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 달리 머릿수(head count) 방식이라 불린다. 1주일에 20시간 일한 파트타임 근로자와 주 40시간 일한 전일제 근로자, 주 52시간 일한 초과근무자가 모두 1명으로 추정된다.

머릿수 방식으로 취업자를 추정할 경우, 질이 낮은

파트타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사회와 숙련된 전일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사회의 고용 상황을 같다고 기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에서는 매년 머릿수 통계를 보완하는 통계로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 등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에서도 자체적으로 FTE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쯤부터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따라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또 2019년 말 코로나19 발발 이후 숙박·음식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총량 감소 추세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FTE 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일제 환산방식(FTE)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Ⅰ. 서론

□ 2021년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낙관적 인식이 확산됨

○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전후로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발발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인식이 확대됨

○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연간 평균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늘어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취업자 수도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2,712만 3,000명보다 15만 명(0.6%)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5%로 전년보다 0.4%P 상승, 15~64세 고용률도 66.5%로 전년비 0.7%P 상승함

○ 이 같은 통계는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의 경기 인식과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계 발표 이틀 후 지난 1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발발 직후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금리 정책을 펴왔음.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했음
-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등의 여파로 최근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통상 기준금리는 물가, 해외 금리 등 다양한 경기지표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이 중 국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로 통계청의 고용동향 통계가 활용되고 있음
-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음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1]

- 통계청 고용통계의 긍정적인 수치가 통화정책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이외에 통계청 고용통계는 재정정책당국의 정책 홍보에도 활용되고 있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통계 발표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단계 격상으로 우려가 컸으나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가 6만 3,000명 늘어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21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이어 "상용직 근로자는 3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도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71.7%)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취업 시간별로는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되었는데 이는 통계청 고용통계 현실과 괴리

○ 2018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학계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왔음

-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방식의 고용통계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들로 인해 부풀려졌고, 점차 실제 체감되는 고용상황과 괴리돼간다는 지적이었음.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금융·재정당국의 긍정적인 고용상황 인식도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연간평균), 4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7년까지 53.1%로 절반이 넘었음. 그러나 2018년 47.3%로 5.8%P 하락, 이후 2021년에는 36.3%까지 떨어짐. 절반을 넘었던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임
- 반면 주 20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2017년 7.6%에서 2021년 11.0%로 증가함. 통계청 조사에서 '취업중'이라고 응답하는 인원 10명 중 1명이 1주일에 20시간도 일하지 않는 불안정 취업 상태인 셈임
- 근로자들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다만 정책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영향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급격히 낮아지기도 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8~2019년 사이에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소위 '재정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음
- 정부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 20시간 내외의 일자리를 대량 제공했음.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증가한 취업자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층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근로자, 또 20시간 이내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평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음
-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늘었던 것으로 보임.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기존 취업자들의 근무시간이 짧아지면서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짧아졌고,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기도 했음
- 따라서 2018년 이후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늘어났던 것은 정부의 재정일자리 정책과 경기 악화 등의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임.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여건 개선과는 거리가 있음
-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고용통계는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 취업자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중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시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단시간 근로자 비중 증가가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적은 상황이라면,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더 클 것으로 보임
-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이 고용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낙관적 현실 인식도,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는 통계에 근거한 것일 수 있음

1) 한국은행(2022).

〈표 1〉 주당 근로시간별 분포

(단위: 전 연령, %)

연도	20시간 이하	21~40시간	41~60시간	61시간 이상
1995	2.3	12.5	63.2	21.3
1996	2.3	13.4	62.4	21.1
1997	2.6	16.0	60.5	20.0
1998	3.8	17.0	59.1	18.9
1999	4.4	16.4	57.0	21.0
2000	4.2	16.0	58.7	20.2
2001	4.5	16.1	58.1	20.3
2002	4.6	18.5	56.3	19.5
2003	4.6	19.4	56.8	17.9
2004	5.1	20.6	54.9	18.0
2005	5.5	22.9	52.9	17.2
2006	5.4	24.6	52.1	16.4
2007	5.5	27.5	50.7	14.8
2008	5.6	30.9	49.0	13.0
2009	6.3	28.1	51.1	13.0
2010	6.6	29.3	50.6	11.9
2011	7.3	32.1	48.1	10.8
2012	6.5	31.6	49.6	10.6
2013	6.9	38.1	44.6	8.8
2014	6.8	34.9	47.5	9.2
2015	6.9	34.8	48.1	8.6
2016	7.2	37.4	46.0	7.8
2017	7.6	37.9	45.8	7.3
2018	8.2	43.0	41.3	6.0
2019	9.6	45.1	38.7	5.1
2020	10.2	48.9	33.5	4.3
2021	11.0	51.0	32.3	4.0

□ 단시간 근로 비중 높아졌던 선진국들은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

○ 과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었음. 이런 현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고용통계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음[2)]

- 이런 배경에서 OECD는 회원국들의 FTE 고용률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음[3)]. 영국 등도 개별적으로 FTE 고용지표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음[4)]

2) Brandolini and Viviano(2016).

3)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9

4) https://lginform.local.gov.uk/reports/lgastandard?mod-metric=686&mod-area=E92000001&mod-group=AllRegions_England&mod-type=namedComparisonGroup

- OECD는 회원국들의 연간 FTE 고용률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음. 다만 2~3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해 적시성에 한계가 있음

- 영국의 시간제 근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시장의 수요에 따라 1980년대 전후로 활성화됐음.[5] 전후 복구사업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팽창으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간제 근로가 점차 확대됨

- 이에 따라 1984~1989년 사이 고용률이 70%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가 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84~1989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약 24.6%임. 총 고용 증가율 약 2.1%보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2.8%)이 더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영국 지방자치단체연합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에서는 자체적으로 영국 지자체별 FTE 취업자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고용통계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는 상황. 따라서 영국과 OECD처럼 FTE 취업자 통계를 보조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임

5) 기획재정부(2013).

Ⅱ. 2021년 FTE 취업자 통계

1. 용어 설명

□ 머릿수 계산(Head Count) 방식

○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에 사용되고 있는 집계 방식 '머릿수'를 세는 방식임

- 이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이든, 1시간을 일하는 초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이든, 주 52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든 똑같은 1명의 취업자로 계산됨
-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규모에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있을 경우 머릿수 계산 방식으로 취업자 수는 1명임. 그런데 1년 뒤 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주 10시간짜리 근로자가 2명이 생길 경우 취업자 수는 2명이 됨.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에 투입되는 총 노동량은 줄었고, 개별 일자리들의 평균적인 질도 떨어졌음. 그러나 머릿수 계산 방식으로는 고용상황이 2배로 개선된 것으로 묘사될 수 있음

□ 전일제(FTE) 환산 방식

○ OECD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지표 집계 방식임

- 취업자 1명의 가중치는 주간 근로시간의 40시간에 대한 비율임.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한 자는 전일제 환산 1명(1FTE)임.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0.5명(0.5FTE)으로 환산됨. 주 60시간 일하는 경우는 1.5명(1.5FTE)으로 환산됨
- 기간별 총 FTE 취업자수는, 위와같이 환산된 개별 표본들의 FTE를 모두 합산한 것임
- OECD에서 제공하는 정의에[6] 입각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FTE\text{취업자수} = \sum((\text{표본별총실제취업시간} \div 40) \times \text{표본별가중값})$$

$$FTE\text{고용률} = \frac{\sum((\text{표본별총실제취업시간} \div 40) \times \text{표본별가중값})}{\sum\text{표본별가중값}}$$

- 연간 FTE 통계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text{연간}\ FTE\ \text{취업자수} = (\sum 1 \sim 12\text{월}\ \ FTE\text{취업자수}) \div 12$$

$$\text{연간}\ FTE\text{고용률} = \frac{\sum 1 \sim 12\text{월}\ FTE\text{취업자수}}{\sum 1 \sim 12\text{월 인구수}}$$

2. 2021년 FTE 취업자 통계 산출 내용(〈표 2〉, 〈표 3〉, 〈표 4〉 참고)

□ 종합: 2021년 FTE 취업자 수, 2019년 대비 4.0% 감소

○ 2021년 연간 FTE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코로나19 발발 전인 2019년 2,760만 4,000명에 비해 109만 3,000명(4.0%) 감소했음. 2020년에 비해서는 2,622만 6,000명에 비해서는 1.1% 증가했음

- 이는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수가 2021년 2,727만 3,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5만 명(0.6%) 증가해 코로나19의 상처를 깨끗이 씻은 것처럼 보였던 것과 대비됨
- FTE 방식으로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나아진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임
- 2020년 FTE 취업자 수는 2,622만 6,000명으로 IMF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2,558만 9,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2021년 FTE 취업자수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상황임

6)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 is calculated as the employment/population ratio for 15-64 yeas old, multiplied by the average usual hours worked per week per person in employment (both dependent and self-employment), and divided by 40. Data for the United States are based on average usual hours worked per week by dependent employees only."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9#)

- 연별로 FTE 취업자 수는 1999년부터 조금씩 상승해 2017년 2,860만 4,000명으로 고점을 형성했음. 이후 2018년 2,784만 5,000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급감했음. 2018년 이후 정책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중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모양새임

- FTE 기준 고용률은 2021년 58.8%. 전년 58.6%에 비해 0.2%P 상승. 2019년 62.0%에 비해서는 3.2%P 하락함. 통계청 방식 고용률은 2021년 60.5%, 전년 60.1%에 비해 0.4%P 상승. 2019년 60.9%에 비해서는 0.4%P 하락함. FTE 기준으로 보면 2년간 고용률 하락폭이 더 컸음

□ 산업별: 산업별 타격은 실제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2년새 4.1% 감소

○ 연간 FTE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 보면,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머릿수 방식 취업자 수에 비해 증가폭이 작거나,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음.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가 실제 고용 상황에 비해 거품이 꼈다고 볼 수 있음

- 거품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보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FTE 취업자 수는 2021년 208만 7,000명으로 2019년 194만 9,000명에 비해 7.1% 증가함. 통계청 기준으로는 해당 업종 취업자 수가 2019~2021년 사이 220만 6,000명에서 253만 4,000명으로 14.9% 증가했음. FTE 취업자 수 증가율은 이것의 절반도 안 됨. 통계청 통계와의 괴리가 가장 큰 산업군 중 하나였음

- 이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산한 단시간 공공일자리가 집중된 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FTE 기준 2021년 455만 5,000명으로 2019년 475만 2,000명에 비해 4.1% 감소함. 머릿수 방식으로는 2021년 436만 8,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4% 감소함. 제조업 FTE 취업자 수는 2년간 통계청 방식보다 2.8%P 더 가파르게 감소했음

- 숙박음식업도 2021년 FTE 취업자수는 221만 2,000명으로 2년 전에 비해 14.1% 감소했음. 이는 통계청 기준 8.9% 감소율보다 더 급격한 감소세임.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년간 -13.3% 감소했는데 통계청 방식 -8.5% 에 비해 4.8%P 더 크게 감소함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은 이처럼 통계청 고용통계보다 고용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이외에 운수·창고업은 2년새 4.4% 증가해 통계청 기준 증가율 10.8%에 비해 6.4%P 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였음. 업종 특성상 투잡이나 단시간 알바를 위해 유입되는 인원이 많아 이 같은 괴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됨

□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 봐도, 각 연령대별 FTE 취업자 증감폭은 머릿수 방식 취업자 변화에 비해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음. 머릿수 방식보다 증가폭이 더 작거나, 감소했을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 컸음

- 2021년 15~64세 FTE 취업자 수는 2,418만 3,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34만 명(-5.2%) 감소했음. 통계청 방식으로는 2021년 2,428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30만 4,000명(-1.2%) 감소했는데, 이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임

- 노인 연령대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FTE 기준으로 봤을 때 통계청이 발표한 정도보다 덜했음. FTE 기준으로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67만 4,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37만 9,000명(8.8%) 증가했음. 통계청 방식으로는 70만 6,000명(15.0%) 증가했는데, 이에 비해 실제 증가폭은 6.2%P가량 낮았던 셈임

- 3040세대 취업자 규모도 마찬가지임. FTE 기준 2021년 30대 취업자 규모는 530만 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45만 2,000명(-7.8%) 감소했음.

통계청 기준으로는 2021년 취업자 수는 525만 7,000명으로 2019년보다 27만 3,000명(-4.9%) 감소함. 30대 일자리의 실제 타격 정도는 통계청 고용통계에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했음

- 40대 취업자는 FTE 기준 2021년 642만 5,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47만 7,000명(-6.9%) 감소함. 통계청 기준으로는 2021년 631만 1,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9만 3,000명(-3.0%) 감소함. 실제 감소폭은 통계청 방식 통계보다 2배 이상 컸음
-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2년간 가장 가파르게 하락한 연령대는 3040 세대였음. 40대 FTE 고용률은 2021년 78.7%로 2019년 83.2%에 비해 4.5%P 하락함. 30대는 2021년 76.0%로 2019년에 비해 3.2%P 하락.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 고용률은 40대와 30대에서 각각 -1.1%P, -0.8%P 하락함
- 통계청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로 2019년 대비 1.4%P 상승함. 반면 FTE 고용률은 2021년 37.1%로 2019년에 비해 0.8%P 하락함. 머릿수로 보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더 적어진 셈임.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효과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됐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시간은 더 적어진 것으로 보임

□ 종사상지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하는 시간은 줄어

○ 종사상지위별로도 마찬가지로, FTE 기준으로 보면 머릿수 세기 방식에 비해 2019~2021년 사이 취업자 수 하락폭이 더 크거나, 상승폭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통계청 방식으로는 2년간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FTE 방식으로는 2년간 취업자가 줄었음
- 먼저 통계청 통계에서는 2021년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0만 6,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3만 8,000명(3.4%) 증가했음. 반면 FTE 방식으로는 2021년 425만 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1만 6,000명(-2.7%) 감소했음
- 코로나19 발발 이후 집중 타격을 받은 음식·숙박업종 자영업자들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통계청 통계에서 보듯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그러나 FTE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머릿수가 늘었음에도 총 노동량은 더욱 줄었음을 알 수 있음. 코로나19의 자영업 타격이 통계청 통계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상용 근로자는 FTE 기준으로 2021년 1,518만 3,000명, 2019년에 비해 16만 1,000명(1.1%) 증가함.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67만 1,000명(4.7%)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용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FTE 기준으로 보면 이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함
- 임시 근로자들의 타격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임. 통계청 방식으로는 임시 근로자 수는 2021년 463만 4,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6만 1,000명(-3.4%) 감소함. 그러나 FTE 방식으로는 2021년 349만 5,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54만 4,000명(-13.5%) 감소함. 통계청 방식보다 10.1%P나 더 크게 감소함.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시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었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크게 줄었음을 의미함

3. 현 정권 집권기간(2017~2021년) 노동시장 변화 (〈표 2〉, 〈표 3〉, 〈표 4〉 참고)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 임기가 마무리 돼가는 시점, 현 정권 집권 기간의 노동시장 변화를 FTE 통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7년 이후 4년간 FTE 취업자 209만 명 감소

○ 2021년 FTE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209만 2,000명(7.3%) 감소. 이는 통계청 취업자 규모가 같은 기간 54만 8,000명(2.1%) 증가한 것과 대비됨

-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 노동시장이 양적으로는 발전

했으나 질적으로는 후퇴했고, 곧 '통계 거품'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 이는 현 정권 기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도소매, 숙박음식업 FTE 취업자 각각 20% 감소

○ 2017~2021년 사이 FTE 통계로 본 일자리 타격은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소위 '골목 일자리'로 불리는 최종 소비재, 비전문 서비스 관련 업종에 집중됨

- 도소매업 FTE 취업자는 2017년~2021년 사이 86만 7,000명(20.0%) 감소. 숙박음식업 FTE 취업자는 51만 8,000명(19.0%) 감소
- 해당 업종들은 모든 업종들 중 가장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 4년 사이 5명 중 1명분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진 셈임
- 같은 기간 통계청 취업자 규모는 도소매업이 44만 2,000명(11.6%), 숙박음식업이 19만 명(8.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감소 규모는 FTE 통계의 절반 수준
- 취업자 머릿수도 감소했지만, 실제 일한 시간을 고려하면 노동시장 충격은 훨씬 컸음
- 제조업 FTE 취업자도 이 기간 11.3% 감소. 통계청 취업자는 4.3% 감소한 것과 대비됨
- 통계청 취업자와 FTE 취업자 증가율의 괴리가 가장 컸던 업종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업. 두 업종은 4년간 정부의 공공일자리 공급이 집중된 업종임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FTE 취업자의 경우 4년간 15.4% 증가, 통계청 취업자는 31.9% 증가. 두 통계 증가율의 차이는 16.5%P. 모든 업종 중 차이가 가장 큼. 그만큼 '통계거품'이 많이 낀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예술스포츠업종도 FTE 취업자는 4년간 35,000명(7.8%) 감소한 반면 통계청 취업자는 39,000명(9.1%) 증가. 두 통계 증가율 차이는 16.9%P로 두 번째로 큼

□ 임시, 일용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7~2021년 사이 FTE 취업자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은 일용직(2017년 이후 26.5% 감소), 임시직(-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3.6%) 순

-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 충격에 일용직, 임시직과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보임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폐업이 증가함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고용 중이던 임시직들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키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통계에서는 2017~2021년 사이 취업자 규모가 3.2% 증가, FTE 기준으로는 5.8% 감소.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킨 사장이 늘어났지만, 이들마저 예전보다 일거리가 줄어 쉬는 시간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음

□ 3040세대 FTE 취업자는 4년간 194만 명 감소

○ 연령별로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대는 소위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

- 40대 FTE 취업자는 2021년 642만 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1만 1,000명(-14.7%) 감소. 통계청 방식으로는 겨우 47만 2,000명(-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질적 타격은 그 두 배가 넘음
- 30대 FTE 취업자 수도 2021년 530만 7,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82만 6,000명(-13.5%) 감소. 이 역시 같은 기간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감소세 38만 6,000명(-6.8%)의 두 배가 넘음
- FTE 방식으로 보면 4년간 3040세대에서만 도합 193만 7,000명의 취업자가 증발

Ⅲ.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1.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세로 전환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감소해 오던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 2013년~2016년 24만 1,000명(15.9%) 감소

- 매년 평균적으로 8만 명씩 감소
- 농림어업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2.92%로 0.66%p 하락
- 〈표 9〉 참조

○ 2016년~2021년 18만 6,000명(14.6%) 증가

- 2017년 전년대비 7,000명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
- 매년 평균적으로 3만 7,000명씩 증가
- 농림어업 고용률도 2017년 2.91%에서 2021년 3.23%로 0.32%p 상승
- 연 8만 명 감소라는 추세를 뛰어넘어 연 3만 7,000명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연 11만 7,000명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2016년~2021년 제조업 취업자 21만 6,000명(4.7%) 감소와 대비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도가 아니라 탈산업, 농업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박기성 2020)

○ 농림어업의 생산성이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감소 추세를 뛰어넘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탈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농림어업으로 떠밀리게 된 취업일 가능성이 높음(박기성 2020)
- 3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함

□ 30대 이하 및 60대 이상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 15~29세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2만 3,000명에서 2021년 3만 1,000명으로 34.8% 증가

- 2020년에는 3만 6,000명으로 2016년 대비 56.5% 증가
- 농림어업 고용률도 2016년 0.24%에서 2020년 0.41%로 0.17%p 상승

○ 30~39세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5만 2,000명에서 2021년 6만 명으로 15.4% 증가

- 농림어업 고용률도 2016년 0.68%에서 2021년 0.86%로 0.18%p 상승

○ 60세 이상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78만 9,000명에서 2021년 100만 5,000명으로 27.4% 증가

- 농림어업 고용률은 2016년 8.10%에서 2021년 7.97%로 0.13%p 하락

○ 40~49세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11만 9,000명에서 2021년 10만 8,000명으로 9.2% 감소

- 2020년에는 12만 2,000명으로 2016년 대비 2.5% 증가
- 농림어업 고용률도 2016년 1.39%에서 2020년 1.48%로 0.09%p 상승

○ 50~59세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6년 28만 9,000명에서 2021년 25만 4,000명으로 12.1% 감소

- 농림어업 고용률도 2016년 3.50%에서 2021년 2.97%로 0.53%p 하락

2.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

○ 통계청 조사원들이 혹시 이것을 의식해서,

- 농가 텃밭에서 주 18시간 미만 일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왔던 가구원들 중 일부를 1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파악해서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할 수 있음(박기성 2020)

  * 가구원은 주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

□ 두 번째 추측은 건강보험료 등의 혜택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임

○ 건강보험료 변경

- 본인의 연금, 금융,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 2018년 7월부터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그러나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50%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됨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은퇴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취업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추측할 수 있음(박기성 2020)

  * 60세 이상 농림어업 고용률이 2017년 7.87%에서 2021년 7.97%로 0.1%p 상승

□ 이런 추측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갑자기 늘어난 농림어업 취업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 자료(panel data)를 구축할 필요

○ 통계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외부인도 못하게 함

- 패널 자료는 개인의 몇 년간에 걸친 자료

○ 기초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필요

- 통계주도성장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음

□ 〈표 10〉은 연령대별 농림어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임

○ 〈표 9〉의 연령대별 농림어업 머릿수 취업자와 유사

- 〈표 9〉에 근거한 서술이 〈표 2〉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됨

Ⅳ. FTE 통계 국내 도입 논의 현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FTE 방식이 의미 있다고 평가

-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정부의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통계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옴. 이에 따라 '통계 거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언론 등에서 보완적 지표로서 FTE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됨
-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추정 및 분석'[7] 보고서를 계기로 여러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2020년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이주열 한은 총재에 "향후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수보다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라고 지적
-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전일제 환산방식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FTE 통계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음
-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고용통계 부풀리기 논란과 FTE 통계 활용 의사에 대한 질의가 들어감.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소 부정적으로 답함
- 홍 부총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나라도 FTE 방식으로 공식 노동 통계를 내는 곳은 없다"며 "이것(FTE 방식 분석)에 의해서 취업자가 확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꼼수로 통계가 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함
- 그러나 홍 부총리의 말과 달리 OECD와 영국 등에서 FTE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과거 2019년에는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8] 보고서를 통해 대안적 통계지표 도입이 제안됨
-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 환산 방법은 OECD의 FTE 방식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 주 36시간 미만 일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36'의 환산 방법을 쓰고,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1명으로 통일해 계산하는 방법임

  *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기 위해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1명으로 통일했으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하지 못 함

□ FTE 통계 사용의 한계에 대한 반론

○ FTE 통계 사용의 한계로는 다음이 지적되고 있음: △ FTE 악화는 인구 자연감소 탓임 △ FTE 악화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임 △ FTE 악화는 장기적 추세일 뿐임

○ FTE 악화는 인구 자연감소 탓인가

- 비판의 핵심은,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풀타임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임.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질 고령층 인구가 급증함
- 이 같은 경향은 오히려 FTE 통계를 보조지표로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음.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변화했는데, 기존 통계로는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반면 FTE 통계는 이 변화를 감지했다는 말이기 때문임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풀타임 근로자가 줄고 단시간 위주의 노인 일자리 비중이 커졌다면, 이는 고용시장이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2018~2020년 사이 통계청은 '취업자 수 역대 최고 기록'을 내세웠으며, 정부는 이 통계

7) 박기성, 서영빈 (2020).
8) 박기성, 김용민 (2019).

를 인용해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라고 홍보했음. 이런 왜곡 해석을 막고자 FTE 통계 도입이 촉구돼왔던 것임

- 둘째로, FTE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음. 인구 고령화로 은퇴자가 많이 생겼다면, 오히려 20~40대 들이 이 자리를 메꿨어야 했음. 그러나 20~40대의 고용사정도 함께 악화됐음

- 고령자가 은퇴한 자리를 젊은이들이 메꾸는 현상이 최근까지 일본에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대량 은퇴하면서 빈자리가 늘어나자 지난 2017년 고졸 취업률이 98%에 육박했음. 구직난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취업박람회를 차리기도 했음

-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취업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 매월마다 '3040 경제허리 위기론'이 제기되기도 했음. 2016~2019년 사이 FTE 방식 고용률은 각각 20대에서 60.5%→56.8%, 30대 81.4%→79.2%, 40대 88.4%→83.2%로 일제히 떨어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이런 추세가 나타났던 것임

○ FTE 악화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인가

- 이 같은 주장의 핵심은, FTE 고용률 하락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것임. 문재인 정권 들어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활발해졌고, 이 결과 평균적인 근로시간도 감소했다는 것임. 이에 따라 FTE 고용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상한제가 본래 정책 취지대로 기능했다면 FTE 고용지표가 이렇게 악화될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근로시간 상한제를 펼 때 의도했던 것은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임. 간단히 말하면 주 60시간 일하던 사람을 40시간 일하게 하고 나머지 20시간은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채우도록 하자는 것임. 이렇게 되면 통계청 방식 고용지표는 개선될 것이고, FTE 고용지표는 이전과 변함이 없게 됨

-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던 지난 2018년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만 5,4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산했음. 정부가 의도한 것은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였음

- 과거 네덜란드의 경우 단시간 근로 비중을 늘리자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흡수되면서 FTE 취업자 수가 더 늘었다는 연구도 있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근로시간 상한제 이후 FTE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됐음. 이는 60시간 일하던 사람을 40시간 일하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20시간만큼의 일자리는 그냥 증발해버렸음을 의미함

- 실제로 근로시간 상한제 이후 기업들의 업무 자동화가 가속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음. FTE 고용지표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임

〈표 2〉 연령대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2021년 FTE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 전 체 〉	26,512	-2,092 (-7.3)	-1,093 (-4.0)	27,273	548 (2.1)	150 (0.6)
15~64세	24,183	-2,533 (-9.5)	-1,340 (-5.2)	24,280	-279 (-1.1)	-304 (-1.2)
15~29세	3,586	-351 (-8.9)	-196 (-5.2)	3,877	-29 (-0.8)	-68 (-1.7)
·15~19세	99	-75 (-42.9)	-21 (-17.6)	171	-75 (-30.6)	-27 (-13.6)
·20~29세	3,486	-276 (-7.3)	-174 (-4.8)	3,706	46 (1.3)	-41 (-1.1)
··20~24세	991	-307 (-23.6)	-113 (-10.2)	1,218	-150 (-11.0)	-53 (-4.2)
··25~29세	2,495	31 (1.3)	-61 (-2.4)	2,488	196 (8.5)	12 (0.5)
30~39세	5,307	-826 (-13.5)	-452 (-7.8)	5,257	-386 (-6.8)	-273 (-4.9)
40~49세	6,425	-1,111 (-14.7)	-477 (-6.9)	6,311	-472 (-7.0)	-193 (-3.0)
50~59세	6,519	-513 (-7.3)	-347 (-5.1)	6,422	120 (1.9)	-22 (-0.3)
60세 이상	4,674	709 (17.9)	379 (8.8)	5,406	1,316 (32.2)	706 (15.0)
·60~64세	2,345	268 (12.9)	132 (6.0)	2,414	489 (25.4)	251 (11.6)
·65세 이상	2,329	441 (23.3)	247 (11.9)	2,992	827 (38.2)	455 (17.9)

〈표 3〉 종사상 지위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2021년 FTE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 전 체 〉	26,512	-2,092 (-7.3)	-1,093 (-4.0)	27,273	548 (2.1)	150 (0.6)
◦ 임금근로자	19,634	-1,159 (-5.6)	-556 (-2.8)	20,753	819 (4.1)	313 (1.5)
- 상용근로자	15,183	400 (2.7)	161 (1.1)	14,887	1,460 (10.9)	671 (4.7)
- 임시근로자	3,495	-1,213 (-25.8)	-544 (-13.5)	4,634	-358 (-7.2)	-161 (-3.4)
- 일용근로자	955	-345 (-26.5)	-173 (-15.3)	1,231	-283 (-18.7)	-197 (-13.8)
◦ 비임금근로자	6,878	-933 (-11.9)	-537 (-7.2)	6,520	-271 (-4.0)	-163 (-2.4)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8	-485 (-23.6)	-309 (-16.5)	1,307	-301 (-18.7)	-230 (-15.0)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57	-261 (-5.8)	-116 (-2.7)	4,206	132 (3.2)	138 (3.4)
- 무급가족 종사자	1,053	-188 (-15.1)	-112 (-9.6)	1,007	-103 (-9.2)	-70 (-6.5)

〈표 4〉 산업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2021년 FTE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	2017대비 증가량 (증가율)	2019대비 증가량 (증가율)
〈 전 체 〉	26,512	-2,092 (-7.3)	-1,093 (-4.0)	27,273	548 (2.1)	150 (0.6)
° 농림어업	1,278	124 (10.7)	16 (1.3)	1,458	180 (14.0)	63 (4.5)
° 광업	13	-12 (-48.1)	-4 (-23.9)	12	-11 (-48.2)	-3 (-19.2)
° 제조업	4,555	-581 (-11.3)	-197 (-4.1)	4,368	-198 (-4.3)	-61 (-1.4)
° 전기·가스·증기	70	-3 (-4.1)	3 (5.0)	71	-1 (-0.9)	4 (5.2)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177	50 (39.8)	34 (24.2)	169	54 (46.8)	34 (24.9)
° 건설업	2,003	-81 (-3.9)	-8 (-0.4)	2,090	103 (5.2)	71 (3.5)
° 도매·소매업	3,470	-867 (-20.0)	-532 (-13.3)	3,353	-442 (-11.6)	-310 (-8.5)
° 운수·창고업	1,715	27 (1.6)	72 (4.4)	1,586	181 (12.9)	154 (10.8)
° 숙박·음식업	2,212	-518 (-19.0)	-364 (-14.1)	2,098	-190 (-8.3)	-206 (-8.9)
° 정보통신업	894	60 (7.2)	9 (1.0)	900	118 (15.0)	40 (4.6)
° 금융·보험업	761	-69 (-8.3)	-30 (-3.9)	800	6 (0.8)	0 (0.0)
° 부동산업	544	-51 (-8.5)	-51 (-8.6)	531	-9 (-1.7)	-25 (-4.5)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199	44 (3.8)	26 (2.2)	1,219	127 (11.7)	63 (5.4)
° 사업시설관리·임대 서비스	1,386	-111 (-7.4)	38 (2.8)	1,397	22 (1.6)	85 (6.5)
°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1,008	-7 (-0.7)	50 (5.2)	1,143	84 (8.0)	66 (6.2)
° 교육서비스	1,478	-152 (-9.3)	-70 (-4.5)	1,840	-67 (-3.5)	-43 (-2.3)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2,087	279 (15.4)	138 (7.1)	2,534	613 (31.9)	328 (14.9)
° 예술·스포츠	413	-35 (-7.8)	-69 (-14.3)	467	39 (9.1)	-27 (-5.6)
° 협회·단체·개인 서비스	1,170	-200 (-14.6)	-162 (-12.2)	1,135	-87 (-7.1)	-98 (-7.9)
° 가구 내 고용	64	6 (10.6)	4 (7.6)	87	23 (35.6)	13 (16.9)
° 국제·외국기관	14	3 (25.7)	3 (21.9)	15	3 (26.6)	3 (24.7)

〈표 5〉 전일제 환산(FTE) 및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고용률(전체연령)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연도	FTE 취업자	증가율	통계청 취업자	증가율	FTE 고용률	증감	통계청 고용률	증감
1995	26,792		20,414		79.6		60.7	
1996	27,260	1.7	20,853	2.1	79.5	-0.1p	60.8	0.2p
1997	27,263	0.0	21,214	1.7	78.2	-1.3p	60.9	0.0p
1998	24,989	- 8.3	19,938	- 6.0	70.7	-7.5p	56.4	-4.5p
1999	25,589	2.4	20,291	1.8	71.6	0.9p	56.7	0.3p
2000	26,765	4.6	21,173	4.3	74.0	2.4p	58.5	1.8p
2001	27,242	1.8	21,614	2.1	74.4	0.5p	59.0	0.5p
2002	27,678	1.6	22,231	2.9	74.8	0.4p	60.1	1.0p
2003	27,285	- 1.4	22,222	- 0.0	72.9	-1.8p	59.4	-0.7p
2004	27,603	1.2	22,682	2.1	73.1	0.1p	60.0	0.7p
2005	27,431	- 0.6	22,831	0.7	72.0	-1.1p	59.9	-0.2p
2006	27,762	1.2	23,188	1.6	71.9	-0.1p	60.0	0.1p
2007	27,743	- 0.1	23,561	1.6	70.8	-1.1p	60.1	0.1p
2008	27,342	- 1.4	23,775	0.9	68.7	-2.1p	59.8	-0.4p
2009	27,185	- 0.6	23,688	- 0.4	67.5	-1.3p	58.8	-1.0p
2010	27,133	- 0.2	24,033	1.5	66.5	-1.0p	58.9	0.1p
2011	26,904	- 0.8	24,526	2.1	65.0	-1.5p	59.3	0.4p
2012	27,833	3.5	24,955	1.7	66.5	1.5p	59.6	0.4p
2013	27,261	- 2.1	25,299	1.4	64.4	-2.1p	59.8	0.2p
2014	28,400	4.2	25,897	2.4	66.4	1.9p	60.5	0.7p
2015	28,591	0.7	26,178	1.1	66.1	-0.2p	60.5	0.0p
2016	28,394	- 0.7	26,409	0.9	65.1	-1.0p	60.6	0.0p
2017	28,604	0.7	26,725	1.2	65.1	0.0p	60.8	0.3p
2018	27,845	- 2.7	26,822	0.4	63.0	-2.1p	60.7	-0.1p
2019	27,604	- 0.9	27,123	1.1	62.0	-1.0p	60.9	0.2p
2020	26,226	- 5.0	26,904	- 0.8	58.6	-3.5p	60.1	-0.9p
2021	26,512	1.1	27,273	1.4	58.8	0.3p	60.5	0.4p

〈표 6〉 전일제 환산(FTE) 및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 고용률(65세 미만)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연도	FTE 취업자	증가율	통계청 취업자	증가율	FTE 고용률	증감	통계청 고용률	증감
1995	25,988		19,675		83.8		63.5	
1996	26,382	1.5	20,059	1.9	83.8	0.0p	63.7	0.3p
1997	26,316	- 0.2	20,349	1.4	82.4	-1.4p	63.7	0.0p
1998	24,093	- 8.4	19,105	- 6.1	74.6	-7.8p	59.2	-4.6p
1999	24,652	2.3	19,373	1.4	75.8	1.1p	59.5	0.4p
2000	25,733	4.4	20,175	4.1	78.5	2.7p	61.5	2.0p
2001	26,141	1.6	20,551	1.9	79.1	0.7p	62.2	0.7p
2002	26,508	1.4	21,088	2.6	79.7	0.6p	63.4	1.2p
2003	26,116	- 1.5	21,098	0.0	78.0	-1.7p	63.0	-0.4p
2004	26,334	0.8	21,453	1.7	78.3	0.3p	63.8	0.7p
2005	26,121	- 0.8	21,545	0.4	77.3	-1.0p	63.7	0.0p
2006	26,349	0.9	21,817	1.3	77.3	0.0p	64.0	0.2p
2007	26,211	- 0.5	22,079	1.2	76.1	-1.1p	64.1	0.2p
2008	25,820	- 1.5	22,252	0.8	74.2	-1.9p	64.0	-0.2p
2009	25,712	- 0.4	22,135	- 0.5	73.2	-1.0p	63.0	-0.9p
2010	25,691	- 0.1	22,480	1.6	72.4	-0.8p	63.4	0.4p
2011	25,457	- 0.9	22,920	2.0	71.0	-1.5p	63.9	0.5p
2012	26,226	3.0	23,222	1.3	72.7	1.7p	64.3	0.4p
2013	25,582	- 2.5	23,449	1.0	70.5	-2.2p	64.6	0.3p
2014	26,631	4.1	23,944	2.1	72.9	2.4p	65.6	0.9p
2015	26,818	0.7	24,192	1.0	73.1	0.1p	65.9	0.3p
2016	26,562	- 1.0	24,341	0.6	72.1	-1.0p	66.1	0.2p
2017	26,716	0.6	24,559	0.9	72.5	0.4p	66.6	0.6p
2018	25,882	- 3.1	24,511	- 0.2	70.3	-2.1p	66.6	0.0p
2019	25,523	- 1.4	24,585	0.3	69.4	-1.0p	66.8	0.2p
2020	24,071	- 5.7	24,130	- 1.8	65.7	-3.7p	65.9	-1.0p
2021	24,183	0.5	24,280	0.6	66.3	0.6p	66.5	0.7p

〈표 7〉 연령대별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2017	2018			2019			2020			2021			
	FTE 취업자	FTE 취업자	전년비 증가량	전년비 증가율	FTE 취업자	전년비 증가량	전년비 증가율	FTE 취업자	전년비 증가량	전년비 증가율	FTE 취업자	전년비 증가량	전년비 증가율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가율
〈 전 체 〉	28,604	27,845	- 759	- 2.7	27,604	- 240	- 0.9	26,226	- 1,378	- 5.0	26,512	286	1.1	1.4
15~64세	26,716	25,882	- 834	- 3.1	25,523	- 359	- 1.4	24,071	- 1,452	- 5.7	24,183	112	0.5	0.6
15~29세	3,936	3,824	- 112	- 2.9	3,781	- 43	- 1.1	3,487	- 294	- 7.8	3,586	98	2.8	3.0
·15~19세	174	136	- 38	- 21.9	121	- 15	- 11.3	94	- 26	- 21.9	99	5	5.6	5.7
·20~29세	3,762	3,688	- 74	- 2.0	3,661	- 28	- 0.8	3,393	- 268	- 7.3	3,486	93	2.7	2.9
··20~24세	1,298	1,170	- 129	- 9.9	1,105	- 65	- 5.6	966	- 138	- 12.5	991	25	2.6	3.2
··25~29세	2,464	2,519	55	2.2	2,556	37	1.5	2,427	- 129	- 5.1	2,495	68	2.8	2.8
30~39세	6,133	5,884	- 249	- 4.1	5,759	- 125	- 2.1	5,423	- 336	- 5.8	5,307	- 116	- 2.1	- 2.0
40~49세	7,536	7,203	- 333	- 4.4	6,903	- 301	- 4.2	6,484	- 419	- 6.1	6,425	- 58	- 0.9	- 0.6
50~59세	7,032	6,864	- 168	- 2.4	6,867	3	0.0	6,447	- 420	- 6.1	6,519	73	1.1	1.0
60세 이상	3,965	4,069	104	2.6	4,295	226	5.5	4,386	91	2.1	4,674	288	6.6	6.5
·60~64세	2,077	2,106	29	1.4	2,213	107	5.1	2,230	18	0.8	2,345	115	5.1	4.9
·65세 이상	1,888	1,963	75	4.0	2,082	119	6.1	2,155	73	3.5	2,329	174	8.1	7.9

〈표 8〉 연령대별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

(단위: FTE 취업자, 1,000명/ 증가율, %)

	2017	2018		2019		2020		2021		
	FTE 고용률	FTE 고용률	전년비 증감	FTE 고용률	전년비 증감	FTE 고용률	전년비 증감	FTE 고용률	전년비 증감	통계청 고용률 전년비 증감
〈 전 체 〉	65.1	63.0	-2.1p	62.0	-1.0p	58.6	-3.5p	58.8	0.3p	0.4p
15~64세	72.5	70.3	-2.1p	69.4	-1.0p	65.7	-3.7p	66.3	0.6p	0.7p
15~29세	42.4	41.8	-0.6p	41.7	-0.1p	39.1	-2.6p	40.9	1.8p	2.0p
·15~19세	6.0	4.9	-1.0p	4.6	-0.3p	3.8	-0.8p	4.3	0.5p	0.8p
·20~29세	59.2	57.7	-1.4p	56.8	-0.9p	52.5	-4.3p	54.0	1.4p	1.6p
··20~24세	43.0	39.5	-3.4p	37.8	-1.8p	33.6	-4.2p	35.1	1.5p	2.0p
··25~29세	73.9	73.4	-0.5p	72.7	-0.7p	67.8	-4.9p	68.7	1.0p	1.0p
30~39세	81.8	79.8	-2.1p	79.2	-0.6p	76.1	-3.1p	76.0	-0.1p	0.0p
40~49세	88.2	85.4	-2.9p	83.2	-2.2p	78.7	-4.4p	78.7	0.0p	0.2p
50~59세	84.0	81.3	-2.7p	80.4	-0.9p	75.4	-5.0p	76.3	0.9p	0.8p
60세 이상	38.7	37.8	-0.9p	37.9	0.1p	36.7	-1.2p	37.1	0.4p	0.4p
·60~64세	65.4	62.1	-3.3p	61.2	-0.9p	58.5	-2.7p	58.2	-0.3p	-0.5p
·65세 이상	26.7	26.6	-0.1p	27.0	0.4p	26.5	-0.5p	27.1	0.7p	0.8p

〈표 9〉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머릿수)

(단위: 천 명, %)

연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2013	37(0.40)	66(0.83)	136(1.57)	370(4.74)	904(10.68)	1,513(3.58)
2014	34(0.37)	56(0.71)	134(1.53)	353(4.41)	869(9.84)	1,446(3.38)
2015	29(0.31)	50(0.65)	128(1.47)	318(3.90)	813(8.75)	1,337(3.09)
2016	23(0.24)	52(0.68)	119(1.39)	289(3.50)	789(8.10)	1,272(2.92)
2017	23(0.25)	55(0.73)	112(1.32)	282(3.37)	806(7.87)	1,279(2.91)
2018	24(0.27)	65(0.88)	105(1.25)	280(3.32)	865(8.03)	1,340(3.03)
2019	35(0.39)	54(0.75)	121(1.46)	288(3.37)	896(7.91)	1,395(3.13)
2020	36(0.41)	61(0.86)	122(1.48)	274(3.20)	952(7.96)	1,445(3.23)
2021	31(0.35)	60(0.86)	108(1.32)	254(2.97)	1,005(7.97)	1,458(3.23)

주: 괄호 안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10〉 연령대별 농림어업 취업자(전일제 환산)

(단위: 천 명, %)

연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2013	40(0.43)	73(0.91)	147(1.70)	381(4.89)	789(9.32)	1,430(3.38)
2014	36(0.38)	63(0.80)	141(1.62)	363(4.53)	759(8.60)	1,362(3.18)
2015	30(0.32)	57(0.74)	140(1.61)	318(3.90)	695(7.48)	1,240(2.87)
2016	22(0.23)	57(0.75)	129(1.49)	285(3.44)	667(6.84)	1,159(2.66)
2017	25(0.27)	62(0.82)	116(1.36)	283(3.39)	668(6.52)	1,154(2.63)
2018	25(0.28)	71(0.96)	109(1.30)	280(3.31)	724(6.72)	1,209(2.74)
2019	34(0.38)	58(0.79)	127(1.53)	288(3.37)	755(6.66)	1,261(2.83)
2020	38(0.43)	65(0.91)	128(1.55)	268(3.13)	774(6.47)	1,273(2.84)
2021	32(0.36)	63(0.90)	112(1.37)	245(2.87)	826(6.55)	1,278(2.83)

주: 괄호 안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기획재정부, 2013. 7. 23.

박기성『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 서울: 펜앤북스, 2020.

박기성, 서영빈 “전일제 환산 취업자 추정 및 분석”, KERI Brief 20-02, 한국경제연구원, 2020

박기성, 김용민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KERI Insight 19-09, 한국경제연구원, 201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2022. 1. 14.

Brandolini, Andrea and Viviano, Eliana, “Behind and beyond the (head count) employment rat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Royal Statistical Society, 2016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22년 2월 2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